

여수산단 미세먼지 무인비행선으로 감시

기업들 지난 4월 측정업체와 짜고 황산화물 등 배출량 조작 측정기·감시카메라 등 장착해 불법배출 실태 효과적 파악

정부가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감시하는 무인비행선을 운영한다. 지난 4월에는 대기오염물질 측정대행업체와 짜고 미세먼지 원인물질인 먼지, 황산화물 등의 배출량을 조작해 배출한 여수산단 내 기업들이 적발됨에 따른 조치다.

환경부는 "산업현장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효과적으로 감시하기 위해 기존의 무인기(드론), 이동식측정차량에 더해 앞으로 무인비행선을 본격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무인비행선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올해 12월~내년 3월) 시행과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가능 시기를 맞아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감시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지역에 대한 면밀한 감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존 무인기(드론)는 굴뚝에서 내뿜는 미세먼지 원인물질(황산화물, 질소산화물, 휘발성유기화합물 등)을 사업장 출입 없이 신속하게 측정가능하다는 장점이 있

었으나 짧은 비행시간으로 활동반경이 작은 한계점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무인비행선(길이 11m·폭 3.5m·높이 4m)은 자체 중량이 30kg 정도로 가볍고, 원격·자동으로 비행 가능한 초경량 비행장치로 한 번 충전으로 4시간 이상 비행이 가능하다.

무인비행선에는 미세먼지 원인물질 시료를 포집·측정가능한 측정기와 감시카메라가 장착,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불법배출 실태를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또 사업자가 멀리서도 육안으로 인식할 수 있는 대형 비행선이 미세먼지 배출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홍보까지 병행가능한 순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맞춰 여수산단을 포함한 서해안(시화·반월, 당진, 서천, 대산) 및 남해안(여천, 울산)의 대규모 산업단지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무인비행선을 운영할 예정이다.

금호산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미세먼지의 저감은 온 국민이 함께 풀어갈



환경부는 이번 달부터 내년 3월까지 이어지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에 산업단지 등의 미세먼지를 감시하기 위해 무인비행선을 도입해 활용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속제이며 첨단 기법을 활용한다면 보다 효율적인 것"이라며 "무인비행선이 도입되면 향후 국내 미세먼지 저감 및 감시를

위한 국가정책의 동반상승 효과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무인도서 낚시하면 안 됩니다” 무인도서 출입금지 위반 탐방객들을 단속중인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직원들.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제공>

다도해해상국립공원 겨울철 불법행위 단속

다도해해상국립공원이 겨울철 도서지역 불법·무질서 행위 예방 강화에 나선다. 국립공원공단다도해해상국립공원 서부사무소는 10일 "겨울철 바다낚시철을 맞아 도서지역을 찾는 탐방객들의 무인도서 출입금지 위반 및 겨울철 불법·무질서행위가 증가할 것에 대비해 공원 내 도서지역 사전예방 활동 및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집중단속 기간은 내년 1월까지이며

주요 단속 대상은 ▲무인도서 출입금지 위반 ▲야생식물 채취 ▲불법시설물 설치 ▲갯길 출입 ▲무늬공물 채취 ▲취사·야영 ▲음주·흡연행위 등이다. 이를 어길 시 10만 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일부 위법 행위의 경우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송도진 다도해해상국립공원서부사무소 해양자원과장은 "앞으로도 공원 자원 훼손 예방 및 올바른 탐방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지역주민과 탐방객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지난 4일 해양·환경관측용 정지궤도위성 '천리안 2B호'를 공개하고 있다. 천리안 2B호는 내년 2월 남아메리카 프랑스령 기아나의 기아나 우주센터에서 아리안5에 실려 발사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동아시아 미세먼지 우리위성으로 본다 대기 환경 등 관측 '천리안 2B호' 공개

적조 등 해양 환경도 감시

우주에서 한반도와 동아시아지역 대기 환경을 관측할 천리안위성 2B호가 공개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은 미세먼지와 해양환경을 관측하기 위해 개발한 정지궤도 천리안위성 2B호를 최근 공개했다.

내년 2월 발사 예정인 천리안위성 2B호는 한반도 및 동아시아 지역의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과 한반도 주변의 적조·녹조 등 해양환경을 관측하기 위한 위성으로, 세계 최초 정지궤도 환경탐색체와 천리안 위성 1호에 비해 대폭 성능이 향상된 해양탐색체를 장착하고 있다.

환경탐색체는 일본부터 몽골 남부까지 동아시아 지역의 대기 중에 존재하는 미세먼지 등을 관측하기 위한 초정밀 광학장비로, 관측을 통해 20여 가지의 대기오염물질 정보를 생산할 예정이다.

또 미세먼지 등의 이동 경로를 추적해 국내 대기환경에 대한 국외 영향을 과학

적으로 분석하고, 국내 대규모 미세먼지 발생지역을 파악해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등 대기환경 개선 정책 수립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천리안위성 2B호는 내년 1월 초에 남아메리카 기아나 우주센터로 이송된 후, 발사 전 현지 최종점검 등을 거쳐 내년 2월에 아리안스페이스사의 발사체를 이용해 발사될 예정이다.

천리안위성 2B호가 발사 후 고도 3만 6000km의 정지궤도에 안착되면 성능 최적화 등을 위한 궤도상시험 과정 및 시범 서비스를 거친다. 대기환경 정보 제공은 오는 2021년부터, 해양정보 서비스는 내년 10월부터 개시할 계획이다.

김영우 국립환경과학원 기후대기연구부장은 "천리안위성 2B호의 대기환경 감시는 국민들에게 실시간으로 대기환경 정보를 제공하고 우리나라 대기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국외 대기오염물질 파악을 가능케 할 것이다"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덕유산 삼봉산 일대에서 무인카메라에 찍힌 반달가슴곰. <환경부 제공>

반달곰, 덕유산 일대에서도 발견됐다

서식지 백두대간 확대 관심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인 반달가슴곰이 덕유산 일대에 서식하고 있는 게 처음으로 확인됐다. 10일 환경부에 따르면 국립공원공단과 시민단체 '반달곰친구들'은 올해 9월 2일께 덕유산 인근 삼봉산 일대에서 무인카메라에 찍힌 반달가슴곰 1마리의 모습을 지난달 중순 확인했다.

영상에 등장한 반달가슴곰은 귀에 털싹기를 착용한 흔적이 없어 자연에서 태어난 개체로 분석됐다. 나이는 3~4살 새끼와 성체의 중간 정도인 것으로 추정된다. 환경부는 올해 6월 전북 장수군에서 발

견된 반달가슴곰과는 다른 개체로 보인다고 하며, 활동 지역이 면대영산속 반달가슴곰이 훨씬 여러 보인다고 설명했다. 영상 속 반달가슴곰 목 부위에는 울무에 걸렸다 탈출하는 과정에서 생긴 듯한 흔적도 발견됐다.

발견된 장소는 삼봉산이지만 활동 범위는 인근에 더 큰 산인 덕유산까지 이를 가능성이 있다고 환경부는 전했다.

환경부는 반달가슴곰이 덕유산 인근 삼봉산에서 사는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반달가슴곰이 지리산에서 덕유산 등 백두대간을 따라 확산·복원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연합뉴스

ESS시공전문기업

태양광발전소 부지·시설 고가매입

당사 및 당사관련사업소에서는
소형(100kW~1,000kW) 중형(1,000kW~3,000kW) 대형(3,000kW이상)의
태양광발전시설을 대량 매입중입니다

● 매매대상 ●

- 개발행위 허가전 발전소
- 개발행위 허가중 발전소
- 현재 공사중인 발전소
- 현재 운영중인 발전소
- 1차 FIT 종료중 발전소
- 곤충사육장 + 태양광
- 버섯재배사 + 태양광

선로 걱정 아시고 전화주세요!

당사에서는 **개발행위**(건축물 위 공작물 축조신고)를 **무료**로 해드립니다. (*건축물 구조진단 비용은 유료)

환경과에너지종합기술단(주)
전기공사업면허 광주 제00988호

상담전화
전국대표 1544-1926
010-7614-1055
010-2845-4754